위기의 무안공항·쪼그라든 광양항…철도망은 느림보

서남권 SOC 비전이 없다

〈2〉 막혀 있는 서남권 혈관

경제성만 따진 정부 투자계획
수도권·동남권 집중…불균형 심화
광주·전남·전북 '집안 경쟁'
한 목소리 못 내고 허송세월

정부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서 부산항에 앞으로 10년간 10.82조원, 울산항에는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광양항에는 3.7조원을 배정하는데 그쳤다. 사실상 '투 포트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과 함께 광양항이 미래 동북아 중심 무역항으로 자리잡기 위해 원대한 비전과 실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광양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이 공항·항만·철도 등 국가기반시설들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는 반면 서남권의 물류교통시스템은 여전히 기본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공항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 민간공항(국내선) 이전 지지부진 등으로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투 포트' 정책이 희미해지면서 광양항은 인천항에도 밀리는 위치로 고착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는 아직도 공사중이며, 호남지역의 지선인 전라선과 경전선 등도 느리고 불편한 시설로 남아있다.

정부가 경제성을 따지며 인구와 기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에 대해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조성한 결과 국가 불균형은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호남은 부족한 기반시설의 노선 논쟁, 광주·전남·전북 간 설치 경쟁 등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부에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16~2020)에서 국토부는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명시된 무안국제공항과 지자체 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광주공항과의 통합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지난 2018년 광주민간공항(국내선) 이전을 합의, 2021년까지 이를 이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광주민간공항 이전을 연계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은 새만금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기부대양여' 방식을 대폭 수정하거나 광주군공항 이전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 없이는 서남권 거점공항의 첫걸음인 무안공항과 광주민간공항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반복되고 있다.

광양항의 위상 역시 갈수록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부두는 20석(컨테이너 12석)의 시설을 갖춰 하역능력은 1680만t(384만 TEU)이다. 부산항의 45선석, 하역능력 1911만 TEU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정부는 부산항에 10.82조원을 투자해 30선석(컨테이너 20선석), 항만배후단지 376만㎡를 추가 설치하는 반면 광양항은 3.7조원으로 17선석(컨테이너 0선석), 항만배후단지 10만7000㎡를 조성하는데 그칠 예정이다. 울산항에 5조원을 투자해 18선석, 78만1000㎡의 배후단지, 인천항에 3.48조원을 투자해 6선석(컨테이너 3선석), 586만5000㎡의 배후단지를 각각 신규 조성하게 된다. 사실상 '원 포트'로서 부산항을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항만은 비슷한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투 포트' 중 하나인 광양항의 위상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 물류 시스템의 혈관인 철도망 역시 시급히 갖춰야 할 시설이다. 민선 7기 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에 비하면 지나치게 미흡하다. 우선 2025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2년 앞당겨 2023년 개통하면서 동시에 고속철도망을 목포에서 해남, 진도 등 서남해안 곳곳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지선에 해당하는 경전선, 전라선 등의 고도화도 시급하다. 보다 신속하고 편하게 시설 개선 및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인구, 경제 규모만을 우선해 기반시설 투자를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균형의 피해 지역인 서남권이 계속 쇠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지역별 기반시설 격차가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표 물러나는 이낙연…재보선 결과가 대권 명운 가른다

선대위원장·가덕도 사령탑 맡을 듯
"강력한 메시지·정책 내놓을 것"
춘천 계란 세례 처벌 불원 뜻 밝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TF 활동성과 보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일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당 대표로서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다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돌입하는 '이낙연의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 지휘봉을 내려놓는 이 대표로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 초반대로 떨어진 지지율 반등과 4·7 재보선 승리가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9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는 것을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날 기자간담회와 당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신복지 구상을 주제로 강연에 직접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지 약 6개월 만에 '집권여당 지휘봉'을 내려놓고 대권가도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은 "그동안 당 대표로서 발언과 행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9일 이후에는 강력한 메시지와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권 주자로서 본격 행보가 이어지면 지지율 회복도 가시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인이 된 이 대표의 첫 과제는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선거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가덕도 신공항 특위 위원장을 맡아 재보선 총력 지원에 나서는 등 당분간 재보선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부산시장 후보자 경선결과 이후 이 대표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러 척도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1도시, 제2도시 격차가 좁을수록 그 나라의 미래경쟁력은 강한 것이고,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 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약한 것"이라면서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가덕 신공항을 2030 부산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지장이 없는 시기까지 앞으로 8년 안에 반드시 완공해서 개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5일 강원도 춘천 방문에서 자신에게 계란을 투척한 이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춘천 중앙시장에서 계란을 얼굴에 맞았다"며 "경찰이 몇 분을 연행해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분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경찰에 알렸다"고 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홍영표 "광주 군 공항 이전 해결 정부가 나서야"

민주당 당권 도전…광주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5일 답보 상태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공항 이전의 중앙정부 주도론과 함께 군 공항 통폐합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단체인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에만 의존한 현재의 군 공항 이전 사업 방식은 광주와 전남 간 지역 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재차 강조한 뒤 "궁극적으로는 군공항 통폐합도 고민할 때"라고 구조적 개선책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또 지역 현안과는 별개로 차기 대선 1년을 앞두고 당내 결속도 당부했다. 그는 "서울·부산시장을 비롯한 4·7 재보선 등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당내)마찰이나 갈등보다 당이 하나로 뭉쳐 안정을 꾀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동안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회복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